

커피브레이크 소그룹 성경공부 [요한계시록의 발견 1--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임을 마친 화요일오전반 비대면 그룹의 소그룹원들이
전국에서부터 충주로 모여 함께 나눴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각 7교회에 편지를 쓰셨던 것 중에
한 교회를 선택해서 내가 그 교회의 성도로서
예수님께 쓰는 답장 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은혜로웠던 영상편지 나눔의 시간입니다^^

<https://youtu.be/E5V05RvTuIY>

아멘이시요 충성된 증인이자 하나님의 창조 근본이신 나의 예수님!
바쁜 일상을 지내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각 교회를 향한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저를 향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때로는 뜨끔하고 때로는 위로받고 때로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설레이면서 이 날들을
지내온 것 같아요.
사랑하는 예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깊은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왔던 것
같아요. 부르심의 자리임을 믿고 저의 자리를 굳게 지키려했고 몸이 다 상할 정도로
고군분투했지요.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꽃자리라는 믿음으로 즐거움도 힘듦도 잘
지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시간들을 뒤로 하고 이곳,
새로운 부르심의 땅에 와서 그간 적응하는 시간을 보낸다는 핑계로
잘 쉬고... 잘 쉬고... 또 쉬고 계속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진 것은 없지만... 이만하면 되었다...'
이런 마음을, 인도하심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방치해 왔어요~
서울이 아닌 곳,
가족과 나의 친구들과 동역자들이 없는, 이 먼 곳,
외로움이 찾아올 때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으니까... 하고 위안 삼았던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은줄 알았어요.
'부요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다!'

그렇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시간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간 경종을 울리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도 나태했던 저였어요.
라오디게아교회에 대해 성경발견학습을 하는 동안
말씀으로 저를 깨우쳐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불로 연단한 금,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흰 옷,
안목의 정욕에 찢어있는 눈을 새롭게 할 안약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것을 사서 주님 앞에서
다시 부르심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토하여 내치지 않으시고 문 밖에서 슬하게 두드리시며 기다려주신 예수님,
안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예수님과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기 원해요.
귀와 마음을 쫓긋 세워 열어놓고 주님 앞에 앉습니다.
이제 즐거운 생명의 길로 다시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감사랑(감사하며 사랑)합니다~ ^^

2023년 6월 라오디게아에서
지온 드림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주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무너지고 스스로 자각할 수 없을 만큼 경직된
저의 심령에 기억하라 회개하라 처음행위를 회복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제 가슴을 치고 또 박혀 너무나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럴듯이 스스로 만족하며 잘 하고 있다 생각했고,
자칭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 마음속에 나만의 잣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잣대가 늘 제 주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여
용서하지 못하였던 마음이 있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마음의 잣대가
칼이 되어 저들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헤집어 놓으며 상하게 하지 않았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을 그 때에
주님께서는 자격없는 제게 남편과 함께
우리에게 빛과 같고 또 주님께는 복된 영광교회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들을 향하여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품고 섬기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제게 맡겨주신 사명에 그 사실이 너무도 감사하였고 감격에 겨워 울며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듯 이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때로는 이들의 시선과 마음과 입술의 말이 가시 같을지라도
이들을 꼭 껴안고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였던 교회에 대한 나의 첫사랑은, 나의 시선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닌 또 저들의 아픔이 아닌 나의 아픔에 머물러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이기적이고 못난 내게
주님께서는 기억하라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해 주심으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예수님.. 이런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새롭게 식지 않을 사랑을 회복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나의 기쁨이신 주님으로 오늘을 더욱 행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친구이신 주님과 동행하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님 언제까지나 사랑합니다. 아주 많아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어여쁜자 은정이가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 연속이에요.
예수님 제가 사모가 아니라 연속이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많이 힘들었거든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너무
안타까워하셨겠지만...
예수님께 맡겨야 하는 짐을 제가 지고 매일 기도하며 교회 안에 있었지만

정작 주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불러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많이 기다리셨죠...

주님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보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은 저를 일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닌데

겉으로 보여지는 나에게 너무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쳐버린 저에게 너무 버겁고 힘들었던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시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처음에 아름다운 우리교회에 부임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던 주님..

내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해함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저로 다시
서겠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총만하심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감사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언제나 사랑으로 저를 인도해주셨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은
저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소망이시고 주님께서 주되십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이 생명주고 사신 사랑하는 딸 연속이가-

라오디게아 교회교인이며 주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있는 은아가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읽고 나서야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참 많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나만 혼자인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너무 버거워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으로 변질되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말로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외치면서도

실상은 그게 왜 축복인데 하면서 따지거나 하면서요...

처음 라오디게아로 이사오면서 모든 것이 풍족한 이곳 환경이 너무나 좋아보였어요.

삶에서 여유가 보이고 부족한 것이 없어서 그런지 인심까지 넉넉해 보이는

이곳 사람들도 부러울 만큼 보기 좋았구요.

그래서 나도 여기 살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살다보니 실상은...

주님 말씀처럼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더라구요.

겉으론 신앙이 좋은 척 하며 살지만 위기의 순간에

이들이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돈이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게 왜 큰 죄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무엇이든 돈으로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지만,

그들의 이런 모습을 비난하고 정죄만 하고 있는 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간다고 했을 때 무척이나 걱정하셨던 예수님이 정말 많이 보고

싶었는데,

보내주신 편지를 읽으면서, 내가 이미 이긴 싸움이니 너도 이길 수 있어 하시는데,

역시 제 마음과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느꼈어요.

그래요 예수님 저 이길 거고 이겨 나갈 거예요.
물론 가끔 아주 가끔은 질수도 있겠지만 다시 이길 거예요!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예수님.
구구절절 당부하고 당부하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잘 지킬게요.
다시 열심을 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알겠어요 고난이 왜 축복인지를요.
잘 견디고 잘 인내하는 제가 될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주신다고 약속하신 선물은 꼭 저 주세요.
꼭이에요!!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보고 싶은 예수님
또 편지할게요.

-당신의 사랑하는 딸 은아 올림-

사랑하는 예수님...

처음에도 계셨고 나중에도 계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제 삶에 생생한 원동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 삶과 사역에서
제가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 어려움을 말닥들일 때마다
답처럼 깨달아지는데 막연히 죽기만 해야한다면 힘들었을텐데+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고 살리는 것임을+
그럴때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이고 감격입니다.

제 평생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신 그 목자되신 마음을
알수 있는 길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영혼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더 나아가 십자가를 질 때만이
가능하다는걸 (서머나교회) 우리 교회에 편지해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에 대한 바른 정의도 감사해요.

실상은 ...

부요한 자라고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그 정의로 제 영혼에 새겨놓고

부요한 자답게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속에서

부요함을 느끼고 배부르기 원해요.

그러나 실은 더 두려워요.

유대인을 향하신 예수님의 정의가 더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어요.

자칭

자칭

자칭...

전 얼마나 자칭의 수식어를 달고 살면서

의로운척 거룩한척 헌신적인척

나도 모른채

사단의 옷을 입고 사단의 회에 들어가서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 ~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귀히 여겨 주셔서 감사해요.

저들의 삶에 적지않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감당할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매일 주님과 깊은 교제로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세상이 주는 상과 평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값지게 여길수 있는

은혜 (시아)가 되고 싶어요.

가장 많이 힘들때 주님께 편지를 많이 보냈는데ㅜㅜ~
이번에 주님께 먼저 편지를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예수님을 뜨겁게 가장 사랑하는 은혜가 드립니다-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

오늘날의 수많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쓰신편지는 우리의 마음을 찢리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예배하며 만족해 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 천년 전 라오디게아 교회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나온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주변의 성도들과 영적으로 교류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30여년이 지난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저 자신들의 미지근한 삶속에 만족을 누립니다.

한 세대를 지나면서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걸까요?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며 이 땅에 한 세대가 지난 후의 다음세대를 떠올립니다.

지금도 적당히 만족하며 사는 세대인 우리가

과연 자녀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희에게 물질의 부요보다는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적당한 헌신과 예배가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 드리는 헌신과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끝까지 인내하시며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이켜 마지막에 나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날을 기대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내가 속한 교회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날마다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2023. 6. 4.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날을 기대하는

-김희진 올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화가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요즘은 날씨가 좋아서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빗대어 말씀하신 부분이 떠올랐어요.

사실 매일 포도나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은 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저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몰라도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편지가 저희교회 도착했을 때 우리는 뭇듯이 기뻐했어요.

한편으로는 다른교회들에게 책망하신일 때문에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작아도

힘써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저는 그 부분을 목사님이 읽어 주시는데 그동안의 설움이 다 녹는듯 했으니깐요.

사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편지를 받기전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자들, 예수님의 말을 빌리자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저희를 회당에서 쫓아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서럽고 원통하던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왜 믿지 않는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하면 신성 모독이라며 당국에 저희들을 고발 까지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해연 성도님께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편지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하고, 열린문을 닫지 않으신다 하니

이 말씀을 듣고 소망이 생겼어요.

언젠가는 저희도 회당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수 있을거라는 소망과 믿음이 생겼답니다.
저만 그런게 아니예요. 다른 성도들도 슬퍼했던 얼굴들에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있어요.

참 그리고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며칠전에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에게 절하면서
그동안의 죄를 용서해 달래요 자기들도 예수님을 알게 됐다고 하면서요.
이거 맞죠? 예수님이 그렇게 될거라 하셨잖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온 것이 얼마나 기뻐던지
그동안 아껴 두었던 좋은 포도주를 꺼내어 함께 잔치를 벌렸답니다.
예수님!!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하셨으니 조금만 더 참아 볼게요.

예수님이 말씀 하신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저는 보고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성전에서 쫓겨 나지도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대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내 몸에 기록해 주신다 하셨으니 끝까지 견디어 이길것이에요!!
그러니 항상 저와 함께 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칭찬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도록 충성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참 예수님!! 헤연성도님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겠죠?
헤연성도님이 끝까지 그곳에서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세요!!
천사를 보내어 우리의 소식도 알려 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예수님!!
제가 쓴 편지 받으시면 답장은 해 주시는 거죠?
답장이 없어도 말씀으로 항상 얘기 해 주시니 실망하지 않을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속 좁지 않아요 ㅎㅎ
그때까지 엄청 바쁘시겠지만 꼭 제 편지 기억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또 편지 쓸게요.

항상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충성된 증인이 되고픈 당화 미경성도가 올려 드립니다~♡-

빌라델비아 성도이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혜연이가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주님께서 친히 편지를 쓰셔서 저희들에게 보내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감옥(미경성도님께 들으셨죠..)에 있는 상황에서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가 너무 궁금하고
설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책망을 하려 하시는 건가?

여러 생각을 하며 주님의 편지를 미경성도님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고는 한참을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게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은 것 밖에는 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것들을 작은 능력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기쁨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니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시간들까지도 너무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보시기에 참 잘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길을 잘 따르고 있었구나!

생각하니

마음 속에 기쁨이 넘쳐나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비록 회당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보고 계셔서

우리를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지켜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에 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받는 이 시험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신다는 말씀이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에,
그리고 지켜주신다는 마음에,
무엇이든 다 이겨 감당해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나의 주님...
저희들에게 또 속히 오신다 말씀하시며
우리가 굳게 잡고 있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잘 잡으라 하셨는데...
주님...
그렇다면 그 면류관을 우리들이 이미 받은거죠?
그런거죠? 이미 내 것인거죠?
그렇다면 진짜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잘 잡고 있겠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저도 마음을 잘 잡고 지킬테니
성령님께서도 친히 저의 마음 속에서 저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저를 꼭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늘 언제나 제가 주님께
저는 주님 전에서 주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고 늘 고백했었는데...
제 고백을 들으시고 또 이렇게 저를 성전의 기둥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신거예요..ㅎㅎㅎ
주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저의 기도를 모두 다 듣고 계셨네요~
여튼 저를 성전의 문지기나 성전의 기둥이나
늘 언제나 주님 곁에 두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새 이름을 받고 그 이름을 기둥에 새겨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
저 이 모든 시험의 때를 잘 감당하고 잘 이겨내 보겠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상황들을 기쁨으로 잘 이겨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역시 또 딱 필요한 타이밍에 저희들에게
편지로 말씀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저는 답장 꼭 받고 싶습니다!!

답장 필히 꼭 말씀으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는 주님의 딸 혜연이가♡♡-

안녕하세요 예수님♥

항상 저의 곁에 계셔서 마음을 알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번에 공부한 일곱교회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사모님들의 편지에 엄청 감동 받았습니다.

예수님!

나의 열심보다

나의 기도보다

더 잘 아시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시고 평안주심에 감사드려요.

자주 감사편지 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이 사랑하는 딸 성옥 올림-



